

인권주일  
설 교

## 듣는 것에서부터

<로마서 10:17>

일본기독교협의회 (NCCJ) 오시마 가오리 총간사



(이 설교는 2025년 6월 11~13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NCC협의회 때,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수요예배에서 설교한 내용이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저는 일본기독교협의회(NCC) 교육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어느 모임에서의 일입니다. 개회 성경공부 담당은 재일대한기독교회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본문은 다니엘서 1장 6 ~ 7절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 살이라 하고 하나님은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붙였다는 것뿐인 본문입니다.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재일동포들은 대부분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조선인으로서의 본래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식 이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족 이름을 쓰면 재일조선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차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인인 척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 이름을 마음에 숨기고 일본식 이름을 쓰는 거죠."

32년이 지난 지금도 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 오사카시의 조사에서 약 85%의 재일동포가 '항상 일본 이름을 사용한다', '일본 이름을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고, 2017년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조사에서는 민족명과 일본 이름을 사용하는 재일동포 고등학생의 비율이 민족명 33.3%, 일본명 66.7%로 나타났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본명을 밝힐 수 없어요. 그것은 존엄성을 짓밟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일행들이 우리 재일동포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글에서 그들의 아픔을 빼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타는 불 속에 던져지거나 사자굴에 던져질 때마다 얼마나 아슬아슬했을 때, 저는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일행처럼 고향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문화와 관습을 부정당하며 저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 아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것이 제가 NCC에서 일하면서 처음 배운 것입니다. 그 후 잠시 공백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다시 NCC에서 일하기 시

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여성위원회가 개최한 성경포럼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한 강사가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를 말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인'을 하나님의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또한 18장의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호소하는 과부의 비유'를 예로 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과부'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은화를 찾는 여인의 비유' 바로 앞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이야기는 금방 '하나님 이야기'로 느껴지는데, '잃어버린 은화를 찾는 여인'은 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의를 위해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과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포럼 강사가 지적했듯이, 우리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남성이다', '하나님이 여성일 리 없다', '하나님이 과부일 리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안의 고정관념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저의 NCC에서의 두 번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5년은 일본의 폐전, 한국/조선은 〈광복〉 80년, 한일 조약 60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일본 정부는 과거 조선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외면한 채 오히려 역사를왜곡하고 자기 정당화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의를 추구하는 과부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은화를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는 여인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한 다니엘 일행의 편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도 정의를 추구하며 걸어가고자 합니다.'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저는 한국의 여러분, 재일동포 여러분에게 '서로 들어줍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듣는 것'이 필요 한 것은 시민주의를 끝내지 못한 일본 교회 쪽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경청하고, 거기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려는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저는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각인된 생각과 편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우고,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위원회

##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 KCCJ선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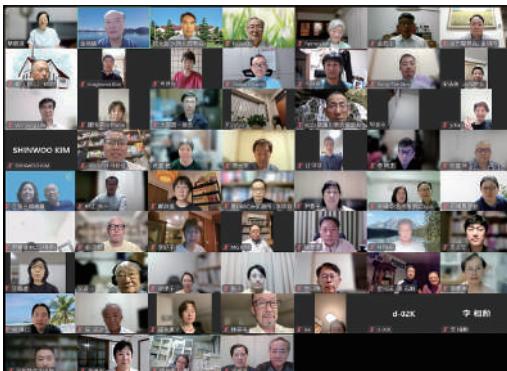
지난 7月28일 저녁 7:30~9:30경까지 선교위원회 주최로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KCCJ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며 – 그 과제와 미래상 –」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응답이 있었다.

먼저, 발제 강사인 총간사 정수환목사는 현재 약화되어 가고 있는 교세의 현황과 앞으로 10년 안에 은퇴를 앞둔 목회자가 30명, 장로가 40명에 이르는 엄격한 현실의 문제를 알렸다. 부족한 목회자를 충족하기 위해서 선교사 자녀들 중에 목회자로 인재양성을 한다거나 선교협약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교단과의 밀접한 접촉이 필수불가결함을 말했다. 또한 노후된 교회의 수선비나 건축기금 마련의 필요성과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용하여 다문화 공동체를 이루어 일본 사회 내에서 마이노리티 공동체의 가교역할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KCCJ가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변혁과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미래상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 발제의 응답으로 이명신목사(오사카교회)와 김성태목사(동경교회)의 발언이 있었다. 이명신목사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와 건강한 리더십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선교사의 자녀로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온 경험을 가진 김성태목사는 KCCJ가 가지는 독특한 정체성 – 이민교회가 아닌 식민지의 아픔을 경험한 고통 공동체로서 일본 사회 중심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그네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며 연대하여,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KCCJ의 미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 후에 위원장 조영철 목사의 인도로 종합토론의 시간이 있었고, 여러 과제와 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비록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세미나를 계기로 보다 밝은 미래가 열려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참가자는 목사, 신도를 포함한 77명 정도였다.

## 대한민국 해방 80주년 기념예배 및 강연회 개최

2025년 8월 10일 오사카교회에서 대한민국 해방 80주년 기념예배 및 강연회가 관서지방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개회 예배는 서기 배정애목사의 사회에 의해, 서울 참실교회 사랑의 숲 어린이 합창단에 의한 특별 찬양 후, 지방회장 김종권 목사가 “다니엘의 구국기도” (다니엘 9:12~19)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정연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강연회는 부회장 송남현목사의 사회에 의해, 강사 이원중목사 (동지사대학 기독교 문화센터 준교수, 교목)의 프로필 소개 후, 주제 “광복 80주년 맞이하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의 과거·현재·미래 ~약할 그때에 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일대한기독교회는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공통 사명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일은 과거에도 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교육위원회

## 전국 교역자 수양회 개최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주제로

교육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 교역자 수양회가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 에큐메니컬 운동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다”를 주제로 8월 4일(월) 오후 1시부터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되었다.



강연자 후지와라 사와코(藤原佐和子)

교수는 (明治学院大学 부교수, NCCJ 서기)는 KCCJ도 가맹하고 있는 WCC(세계교회협의회), WCRC(세계개혁교회공동체), NCCJ(일본기독교협의회)가 추진해 온 <젠더 정의(Gender Justice)> 운동의 흐름을 개괄하는 가운데, 교회 역사가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강화해 온 점을 강조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안전한 공간(safe space)을 추구해 온 목소리가 <젠더 정의>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하나님의 자유로운 부르심>을 방해함으로써 실제로 자신의 <안전한 공간>을 잃게 된 남성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전 세계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남성>이 모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연 후, 石橋真理恵 伝道師(전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의 응답에서는 KCCJ내의 구체적인 남녀 목사 장로의 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부장적인 성적 역할 분업이라는 강고한 한국/재일문화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목사나 장로가 되는 길이 막혀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약 50명의 참가자들은 발제와 응답에 매우 열정적으로 귀를 기울였으며 활발한 질문이 이어졌다. <장로를 세우지 않고 교회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를 지지해온 구조의 문제다>, <남성, 여성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인간성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등 귀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교역자 수양회에서 처음으로 다뤄진 이 주제를 KCCJ 전체에서 지속



적으로 공유하며, 앞으로 어떤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지 모두가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만 한다. 이데올로기에 좌우된 것을 회개하고, 스스로 일본인, 재일 코리안,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 만족하며 약할 그때에 강하다는 믿음으로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사랑, 정의, 희생, 봉사, 겸손을 실천하고, 일상의 평화를 위해, 일본·한국·북한 사이의 평화를 위해 일한다. 십자가의 정신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전도이다.

(보고 : 배정애)



특별기고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일본 기독교



이상훈 목사 (나고야학원대학 준교수)

## 1. 들어가며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인 9월 1일, 간토 지방을 강타한 거대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희생자 가운데에는 ‘자연재해’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조선인·중국인·일본인 사회주의자에 대한 학살행위라고 하는 형태의 ‘인재’에 의한 것도 다수 존재하였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인재’ 중에서, “조선인들이 패거리로 이루어져 습격하러 온다” 등의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발생한 조선인 학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수천 명을 학살한 주체에 일본인 민중이 조직한 자경단뿐만 아니라 군대와 경찰도 있었음을 우선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관해서는 1960년대 이후 연구 성과가 발표되어 왔으며, 1960년대 전반에 이미 강덕상과 마츠오 타카요시 같은 역사학자들에 의해 군대·경찰·자경단이 학살의 주체였음을 밝혀진 바 있다. 그 후 연구가 진행되면서, 고등학교 등의 교과서에서도 조선인 학살에 관한 서술이 등장하게 되었고, 1990년대에는 학살의 주체가 군대·경찰·자경단이었음을 명기한 교과서도 나왔다.

이렇게 일반 역사학계에서 학문적 성과가 축적되어 가는 가운데, 일본 기독교 관련 출판물에서는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에 대해 어떻게 서술되어 왔을까? 여기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기독교계 신문·잡지 및 일본기독교사 관련 출판물의 서술을 살펴본 뒤, 지진 당시 도쿄와 요코하마에 있었던 교회들의 개 교회사 및 기독교계 학교의 학교사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한다.

## 2. 기독교계 신문·잡지 및 일본기독교사 관련 출판물의 서술

1945년 8월 이전에 나온 출판물 가운데 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지진 직후부터 10월 20일까지는 학살에 관해 보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였는데, 일본기독교회의 사마 와타루 목사는 10월 11일자 「복음신보」(일본기독교회 기관지)에서 학살 자체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마황제 네로에 의한 기독교인 학살을 비유로 둘째로써 조선인 학살을 암암리에 비판하는 글을 썼다. 또한 기독교 사회운동가 가가와 도요히코도 10월 13일자 글에서 학살 자체는 언급하지 않는 형태로 비판을 가하였다. 그 밖에 일본조합기독교회 혼고교회(현 일본기독교단 유미초혼고교회) 기관지 「新人」에서 야마시타 젠스케(1923년 12월호)와 아소 히사시(1924년 1월호)가 조선인 학살을 비판하는 글을 각각 실은 바 있다. 후자의 글은 조선인에 대해 저질러온 악행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 하는 마음이 학살을 발생시킨 원인이었다고 지적하였다.

1945년 8월 이후의 서술은 어떠할까? 필자가 조사한 범위 가운데에서는 1956년 간행된 구야마 야스시 편, 『근대 일본과 기독교(다이쇼·쇼와 편)』 중 “관동대지진 때 다른 한편에서는 무고한 조선인 학살과 사회주의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다.”는 서술이 조선인 학살을 언급한 최초의 글이었으며, 1950년대까지는 학살을 언급한 글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에 몇 가지 중요한 논고가 등장하였다. 그 중 하나는 오윤태의 『일한 기독교 교류사』

(1968年)이다. 이 책에서 오윤태 목사는 강덕상과 마츠오 타카요시의 연구를 근거로 학살의 주체가 군대·경찰·자경단이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우에무라 마사히사와 우치무라 간조 등 지진 당시의 일본기독교 지도자들이 학살에 대해 침묵했던 것을 비판하였다.

그 후 『복음과 세계』가 관동대지진 50주년이었던 1973년 7·8·10·11월호에 조선인 학살에 관한 여러 논고를 게재하였는데, 그 중 몇몇 논고에서도 학살의 주체가 군대·경찰·자경단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까지의 서술에서는 학살 주체가 군대·경찰·자경단이었음이 지적되고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학살 주체를 자경단만으로 보는 서술이 정착되어 갔다. 예를 들어, 1988년 간행된 일본기독교역사대사전 편집위원회 편의 『일본 기독교사 연표』에는 “9.2 케이힌지구에 계엄령 시행, 조선인 폭동에 대한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시민은 자경단을 조직, 조선인 학살이 시작된다.”라는 서술이 나온다. 학살 주체에 관한 이 서술이 이후 일본 기독교계 출판물에 미친 영향이 결코 작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관동대지진 100주년을 기념하는 2023년에 역사학자 김경호는 『복음과 세계』 5월호에서 군대·경찰·자경단이 학살 주체였음을 간결하게 언급하였는데,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짧지만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3. 개 교회사의 서술

다음으로는 도쿄와 요코하마에 있던 교회들의 개 교회사에서 어떻게 서술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2023년까지 간행된 113개 교회의 개 교회사 204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가운데 ‘본문’에서 조선인 학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4개 교회, ‘연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15개 교회였다. 그 가운데 조선인 학살을 언급한 최초의 서술은, 조금 미묘한 표현이긴 하지만 연표에서 “조선인 폭동에 대한 유언비어, 조선인 박해”라고 적은 1979년도 출판물 『레이난자카교회 100년사』였다. 1979년 이전 간행된 개 교회사 중 지진 당시의 “유언비어” 등을 언급한 것은 있었지만, 학살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학살’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1988년에 간행된 『시로가네교회 70년사』가 최초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책의 연표에는, “케이힌지구에 계엄령 시행/조선인 학살 시작”이라고 적혀 있다. 어떤 경우든 그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개 교회사에 조선인 학살을 직접 언급하는 서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이후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개 교회사 가운데 학살의 주체에 대해 언급한 모든 서술이 ‘자경단’으로 되어 있었으며, 학살 주체에 군대와 경찰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4면에 계속)

吳允台『日韓キリスト教交流史』  
(新教出版社, 1968年)

「広尾教会百年史」（2002年）の中の関東大震災関連の記述

一九二二年（大正一一年）津川主一牧師が就任。その翌年（一九二三年）にマグニチュード七・二の関東大震災が発生。津川牧師は神宮外苑の救護所は被災者の一部を救援されたものの、火災は免かれた。津川牧師は神宮外苑の救護所は被災者の一部を救援されたもの。

「朝鮮人が略奪、放火を繰り返している」という噂が横浜、東京へと広がり、六〇〇〇人を超える朝鮮人の殺害、襲撃事件が多発した。しかし津川牧師は、朝鮮の方々を教会に匿うこともされ、また、教会を救護所として食料の調達や炊き出しも行つたようである。

개 교회사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일본 기독교단 히로오교회가 2002년에 간행한 『히로오교회 백년사』의 서술을 소개해 두고 싶다. 이 책은 당시 동 교회의 목사였던 츠가와 슈이치가 조선인을 교회에 숨겨주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 다른 교회의 개 교회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서술은 찾아볼 수 없다.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귀중한 증언이 아닐 수 없다. 츠가와가 어떤 생각으로 조선인을 구해주었는지를 밝혀주는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참고로, 츠가와 슈이치는 미국 작곡가 포스터를 일본에 소개한 것으로도 유명한 교회 음악가였다. 예를 들어, 어린이 찬송가 ‘아이를 초대하다’ (작자: 나카다 우고)는 츠가와가 작곡한 곡이다.

4. 학교사의 서술

마지막으로 도쿄와 요코하마에 있던 기  
의 학교사에서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살  
위해 20개교 92권의 학교사를 분석하였는  
데는 다음과 같다. 20개교 가운데 7개교의 학  
교사가 관련된 서술이 발견되는데, 그 중 학살에  
관한 첫 번째 책은 1964년에 간행된 『아오야  
마』 이었다. 즉, 개 교회사보다 비교적 이른  
날이 다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개 교회사 가운데  
에서는 단 한 개의 교  
회사에서만 조선인을  
숨겨준 사례가 포함  
되어 있었지만, 학교  
사의 경우에는 아오  
야마한 왕 메이지 히

青山学院九十年の歩み（1969年）における関東大震災に関する記述の一部

なお、ここに加えておくべきことは青山学院が行なった朝鮮人の収容・保護である。余温總  
き大火燃えさかり、この世の終りを思ひながらの混亂状態の中に、大地震の翌日から朝鮮人  
や社会主義者が暴動を企てて放火を行なつてゐるという流言などび、幾度の不安に戦慄してい  
た市民の心は、ことの正否を考へることもなく「自然辯」を網羅して朝鮮人を見つけると逮  
捕・暴行あるいは殺戮に及んだ。この様になった朝鮮人は三千人に達したといわれるが、青  
山学院は神学部を中心として、この事実無根のデマの犠牲から朝鮮人を救うことに努力した。

원, 럭교학원 등 3개교의 학교사에 조선인을 숨겨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럭교학원 150년사』 제1권(2023년)에는 4명 정도의 조선인 학생을 학교에 숨겨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메이지학원의 학교사에는, 당시 고등부 부장이었던 구약성서 학자 츠루 센지의 부탁을 받은 고등부 교수이자 신학자 나카야마 마사키가 자택에 2명의 조선인 학생을 숨겨준 일, 메이지학원에 배속된 군인이 순에 칼을 들고 츠루에게 조선인 학생의 위치를 말 하라고 위협했을 때 츠루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한다.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거부한 일 등이 서술되어 있다.

『明治学院八十年史』(1957年) の中の関東大震災に関する記述

또한 아오야마학원의 학교사에는, 지진 때 무너지지 않은 신학부의 기숙사에 100명 이상의 조선인을 수용하여 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참고로, 지진 당시 동경교회 목사였던 오기선과 동경조선YMCA의 최승만 등도 지진 후 바로 이 아오야마학원 신학부 기숙사에 잠시 머물렀던 바 있다. 또한 당시 신학부 학생으로서 1930년대에 오사카와 동경의 교회에서 목회하게 되는 김수철도 있었다. 교회보다 학교에서 조선인을 구해준 사례가 많았던 것은, 일상생활에서 조선인 학생과 교류할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 5. 나가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에 걸쳐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 교회사·학교사·일본기독교사 관련 출판물에서 학살 주체로서 자경단만 언급되어 왔음을 살펴 보았다. 1978년 아래, 고쿠라교회의 최창화 목사(1995년 소천)가 주축이 되어 일본 기독교인들의 협력을 받아 조선인 학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고 국회의 사죄 결의와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매년 9월 1일에 개최되어 왔다. 학살 주체에서 군대와 경찰을 빼는 것은 이러한 국가 책임을 유야무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출판될 기독교계 출판물에서는 조선인 학살에 관한 역사 학계의 연구 성과가 잘 반영된 서술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